

“옥천암서 한글의례 배우세요”

12월3일부터 목탁집전 강의
백불학당서 신도교육 ‘활발’

기해년 동안에는 목탁집전을 배우고자, 보물인 ‘보도각 백불’로 유명한 서울 옥천암이 ‘백불학당’을 열고 재가불자들을 위한 우리말의례 집전 강좌를 오는 12월3일부터 3개월간 개설한다.

옥천암 집전 강좌는 신도들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기초교리 강좌를 들던 신도들 사이에서 목탁집전까지 배우고 싶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강좌개설로 이어졌다. 직장인들도 퇴근 후 와서 배울 수 있게 강의시간도 오후7시로 정했다. 주1회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강좌는 우리말 의례에 맞춰 목탁 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옥천암 총무 원목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 강의를 맡았다. 포교원 포교국장을 역임한 스님은 종단 신도지도자 과정에서 한글의례 집전강의에 대해 강의한 바 있다. 특히 스님은 원찰한 강의를 위해 교재 〈조계종 표준 한글의례 강좌〉를 직접 편집, 제작해 활용한다. 3개월 동안 이어지는 수업은 목탁의 의미와 기원에 대한

이론교육과 목탁 잡는 법 등 기초부터 시작해 법회의식과 예불, 독송, 조문 의식 집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원목스님은 “법회의식과 예불의식 집전을 배우면 〈반야심경〉〈천수경〉 등 독경도 함께 익히기 때문에, 기본만 익히면 교재를 보고 어떤 의식이라도 집전할 수 있다”며 “목탁 집전에 관심 있는 많은 불자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옥천암은 지난 10월부터 백불학당을 개원해 3개월 과정의 불교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원목스님의 기초교리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7시(야간)와 수요일 오후1시(주간)에 각각 진행된다. 주지 원철스님의 경전반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1시에 열리며 〈화엄경〉 ‘보원행원품’과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대해 배우는 자리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옥천암 보도각 백불

버스타고 온 불자도 포교사도 “스님...”



지난 23일 열린 법회에도 각계각층에서 모인 200여명의 정진 대중이 위례 상월선원 천막법당을 가득 메웠다. 기도를 마친 불자들이 상월선원 울타리에 소원등을 걸고 있다. 아래사진은 천막법당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하고 있는 스님들.

김형주 기자

위례 상월선원 2차 토요정진 기도현장

“(스님들) 화이트팅 화이트팅 화이트팅!” 한국불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천막결사에 들어간 9명 스님들을 응원하는 사부대중의 힘찬 함성이 하남 감이동 산자락을 뒤덮었다. 지난 23일 위례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 두 번째 토요 정진법회가 열렸다. 이날도 동안거 정진에 함께 하려는 재가 외호대중 200여 명이 법당을 가득 메웠다.

오후2시, 악업을 그치고 탐욕과 노여움,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을 소멸해 깨달음에 이를 것을 기원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가 시작됐다. 목탁과 대북 방망이 쥔 스님들 손에 힘이 넘쳤다. 외호대중들도 한자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한 자 한 자에 힘을 실어가며 진언을 독송했다. 독송과 한 몸이 된 듯 40여 분을 일념으로 기도했다. 석가모니불 정근과 108배를 올리며 자기를 낮추고 그동안 쌓은 악업을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맹정진답게 이날 수행은 잠시도 쉬 틈이 없었다. 오후3시부터는 참선에 들어갔다.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으로 꼽히는 전강스님의 생전 육성법문을 들으며, 이번 생애 반드시 깨닫겠다는 일념으로 정진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오후3시50분, 10분간의 짧은 휴식 이후 대중들은 다시 정진에 들어갔다.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에 이어 각각의 소중한 원력과 발원을 담은 소원등을 선원 울타리에 달았다. 9명 스님들을 응원하는 소원지도 눈에 띄게 늘었다.

200여 명 동참...화이트팅 외치며
9명 정진 대중 무사 건강 발원
12월7일 철야 용맹정진 열어

“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결사’인 만큼 이날 천막법당에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대중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윤재웅 동국대 사범대학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는 스님들이 특별한 형식으로 결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큰 감명을 받고 있다. 9분이 한꺼번에 천막결사를 하시며 한국불교가 새롭게 태어나는 좋은 기운이 이곳에서 다시 시작

되고 있다. 우리 모두 용맹정진 하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칠시다.”

서울 봉은사 거사협회 총무 김봉석 변호사도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선방 개원했을 때 하루 한 끼는 굶으려고 다짐했는데 곧 무너지고 말았다. 3개월 동안 청규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간다.”

은석조 어린이들과 함께 방문하겠다는 양형진 교장의 응원 메시지도 눈길을 끌었다. “연화 어린이라는 신행단체를 조직해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교 어린이 50%가 참여하고 있다. 졸업 수계법회를 통해 금년에 90%가 계를 받았다. 하나밖에 없는 종립초등 학교지만, 새싹불자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정말 소중한 곳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은석조 어린이들이 법회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은 스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 때까지 원력을 모을 것을, 하정은 불교신문 편집국장도 상월선원 동안거가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 신문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포교사단복을 갖춰 입고 정진에 임한 30여 명의 조계사 포교사팀 포교사들도 눈에 띄었다. 기도동참 사부대중은 이날 비닐하우스 천막선방에서 가열찬 정진을 이어가고 있는 9명 스님들을 향해 응원의 함성을 힘차게 외치며 법회를 회향했다.

위례 상월선원 문의 전화 (02)431-0108
하남=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위안 얻고 갑니다”

조계종 미래세대위, 월정사에서 ‘쉼과 응원 있는 템플스테이’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1박2일간 제4교구본사 월정사에서 한국청년연합 회원들을 대상으로 ‘쉼과 응원이 있는 템플스테이’를 열고 고된 일상에 지쳐 있는 이들에게 고즈넉한 산사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선사했다.

한국청년연합(KYO)은 시민참여를 통한 대안적 운동을 펼치는 단체로 이날 템플스테이에는 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사찰 탐방을 비롯해 108배 수

행, 명상, 단주 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불교문화를 배웠다. 또한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마음 속 이야기를 속 나눌 수 있는 자리도 열려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참가자 이혜선 씨는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미래세대위원회는 올 한해 취약계층 청소년,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

생, 청년 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총 7차례 ‘쉼과 응원이 있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일회성 템플스테이를 넘어 청년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듣고 그들에게 위로와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세대위원회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엔 다양한 분야의 청년 세대를 초청해 그들의 고민을 듣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sj0478@ibulgyo.com



불교문화행사(산사문화예술제)

야단법석한 밤

2019년 12월 10일(화) 오후 1시~9시

장소 : 법주사, 선병국가옥, 동학공원, 속리산유스타운
주최·주관 : 법주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대표전화 043)543-3615 팩스 043)543-3620

www.beopjusa.org

1시간 넘게 걸어서 등교 캄보디아 오지마을 아이들 로터스월드 ‘자전거 선물’

부모세대로부터 대물림되는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학교에 가서 무엇이든 배워야만 한다. 그러나 캄보디아 씨엠티 오지마을에 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주변에 마땅하게 다닐 교육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제일 가까운 학교도 대부분 도로로 1시간 이상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가용은커녕 변변한 대중교통 시설조차 없는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 울퉁불퉁 돌이 박혀 있는 비포장 도로를 쉼 없이 걸어야만 한다. 때문에 대다수가 학교에 가는 일을 포기하기 일췌다. 이 아이들이 배움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스님)가 나선다.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 오지마을 아이들이 통학수단으로 사용할 자전거를 선물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모금 캠페인을 펼친다.

로터스월드는 지난 2016년부터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의 보시행으로 매년 씨엠티 빈곤 청소년에게 자전거를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

은 학생들이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파악했고, 이에 자전거 구입을 위한 자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씨엠티 사회복지부 등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마땅한 통학수단이 없어 학교 가는 일을 포기했던 아이들이 다시 배움의 희망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 오지마을 아이들의 배움의 꿈을 응원하고 싶은 개인 및 사찰·단체는 후원 계좌(우리 1005-201-822412, 로터스월드)를 통해 동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로터스월드 사무국(02-725-4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진 기자 sj0478@ibulgyo.com